

한국의 전통 엮음직물에 관한 고찰

권은영* · 이상은*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과정*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Study on Traditional Korean Intertwinement of Textile

Eun-Young Kwon⁺ · Sang-Eun Lee^{*}

Master's Course, Dept. of Korea Traditional Costume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Konkuk University⁺

Prof.,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2007. 10. 25. 접수; 2008. 2. 18. 채택)

Abstract

Different method of textile fabrication had existed since the ancient times, but the most dominant form was the 'weaving' method which embodies the cross fabrication of vertical and horizontal threads using special weaving machines (looms). In addition, fabrication methods like knitting, felt, and lace were commonly practiced while intertwinement methods like twisting, braiding, and knotting techniques were frequently used for weaving strings and braid type textiles. In the past, people did not pay attention to strings and braids because they were classified as non-textiles, but, in this paper, we have expanded the scope of definition of textile to include strings and braids, and seek to conduct in-depth research on various different intertwinement of textiles.

The adaptation of intertwinement method in arts and crafts enables limitless creative works reflecting the ever-changing taste and style of the creator. This creativity is further broadened by the fact that intertwinement methods encompass no set patterns and the subject and shape of its creation is as broad as its artistic pursuits. We can infer the knowledge of our ancestors, their aesthetic taste, and the pattern of life from these creations. In addition, these creations can provide comfort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modern people who are deeply deprived of sentimental and emotional solitude in the technological civilization of the 21st centur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raditional Korean arts and crafts made using the intertwinement methodology through the context of strings, braids, straw crafts and knotting method. Then it will conduct through research on the different materials, forms, characteristics, usage and other key notions based on the currently preserved records and relics to contribute to the research on traditional textiles and provide the foundations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ulture and cultural products, reflecting the true sole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Korean textile crafts.

Key Words: Plaited cord(끈목), Handicraft of plant · Straw(풀 · 짚공예), Knot(매듭)

Corresponding author ; Eun-Young Kwon

Tel. +82-10-9339-9707, Fax. +82-2-450-3229

E-mail : pin0810@empas.com

I. 서론

고대로부터 직물을 짜는 방법은 다양하였는데 대표적인 방법은 경사와 위사를 교차시켜 직기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직조(weaving)기법이였다. 그 외에도 니팅(Knitting), 펠트(felt), 레이스(lace) 등의 기법으로 직물을 만들었으며, 꼬기·맷기·매듭짓기와 같은 엮음기법 역시 끈 또는 끈목 형태의 직물을 짜는데 주로 사용된 중요한 기법이었다. 예전에는 끈·끈목형태를 직물이 되기 이전의 재료로 구분하여 직물연구에서 다소 소홀히 취급한 경향이 있었는데, 본 연구자는 직물의 정의를 좀 더 광범위한 범주로 설정하여 끈, 끈목을 포함하여 복식에 나타난 엮음기법으로 만든 여러 가지 엮음직물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엮음직물의 정의를 살펴보면, 손이나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엮거나 묶어서 구성된 섬유제품을 말한다. 이는 문헌이나 유물로는 배우기 어려운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져 내려온 전승 민속공예(傳承民俗工藝)로써, 신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인류가 정착생활을 시작한 농경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식물의 줄기 또는 나무껍질, 짐승의 가죽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묶거나 매는 작업을 통해 인류생활의 실용적인 생활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꼬거나 엮는 방법으로 미적인 표현 욕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¹⁾

엮음기법을 이용한 수공예품은 만드는 이의 취향에 따라 무궁무진한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다. 정확한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며, 소재와 형태 또한 매우 광범위하다. 또한 조상들의 지혜, 미적 감각, 생활습관까지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결과물인 동시에 기계문명의 산물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여유와 질을 동시에 높여주기에 충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엮음 기법을 활용한 대표적인 한국 전통 수공예를 끈목, 풀·짚공예, 매듭 기법으로 보고 현존하는 복식유물과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소재, 종류, 특성, 활용도 등을 위주로 고찰하여 한국 전통직물연구에 일조하고, 더 나아가 우리 전통문화의 특질을 살린 문화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II. 끈목형태로 나타난 복식에서의 엮음직물

1. 끈목(多繪)의 기본조직 및 특징

끈목의 시원(始原)은 나무껍질과 짐승 가죽을 그대로 가늘고 길게 찢거나, 초목(草木)의 덩굴을 이용하여 묶고 맷는 일을 시작한 데에서부터다. 그것을 더 질기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 합사하여 두 가닥으로 꼬아 쓰다가 세 가닥, 네 가닥으로 맷는 엮음새로 진전을 보았고, 더 나아가 네 가닥 이상으로 짜는 끈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런 끈목의 기본구조는 털·삼·무명·비단 등 섬유질로 만든 모든 복잡한 끈목에도 그대로 통용된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짠 끈을 ‘다회(多繪)’, 끈 만드는 것을 ‘다회(多繪)친다’고 했으며, 조선시대 말에는 사선으로 엮어서 짠 원다회(둥근형태) 이외에도 평직, 경무직, 편직 등의 폭이 좁은 직물이 많이 사용된다.²⁾

끈목의 기본조직과 특징은 <표1>과 같다.

2. 소재

명주, 모시, 삼베, 무명 등의 생사를 정련하여 여러 가지 색으로 염색하고 그것을 여러 가닥 합사하면서 꼬아가며 끈목을 만들거나, 밧밧한 얇은 천을 엮어가며 끈목을 만들기도 한다. 이것은 매듭의 소재가 되어 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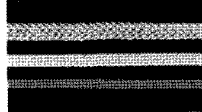
3. 복식에서 나타난 끈목의 활용

1) 의복

남자들의 도포 등과 함께 보이는 동다회·광다회 허리끈은 장신구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의복의 한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고대에 다채로운 끈목이 복식에 사용되었던 예는 문헌으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전시관 박물관 등에 보관되어있는 대자매, 분합 끈 등의 유물에서 그 형태를 유추할 수 있으며³⁾, 신라 흥덕왕 9년 호사스런 장식을 금지하고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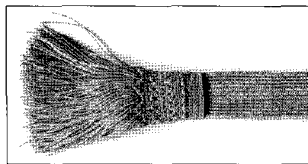
<표1> 동다회 · 광다회 비교

	기본조직	특 징	형 태
동다회 (圓多繪)	4사(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다회(환조)또는 원다회로 불리우며, 끈목의 들레가 등글다. · 끈 틀 없이도 간편하게 칠 수 있으며, 꼬기와 땅기가 주기법이다. · 노리개, 주머니 끈, 각종유소 등과 같이 용도에 따라 굵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p><그림1> 동다회(매듭장)</p>
	8사(絲)		 <p><그림2> 동다회(매듭장)</p>
광다회 (廣多繪)	12사(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다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짜임새로 넓이가 좁은 것은 세조대(細組帶)라 한다. · 품계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였으며, 당상관은 홍색 또는 자색을, 당하관은 청색 또는 녹색을, 서민은 흑색을, 상제는 백색을 띠었다. 	 <p><그림3> 광다회(매듭장)</p>
	광다회대 (廣多繪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은 다회로 만든 띠. · 조선시대 가동(歌童)의 예복의 띠이다. · 홍색 명주실로 만들며 끈에 술을 늘어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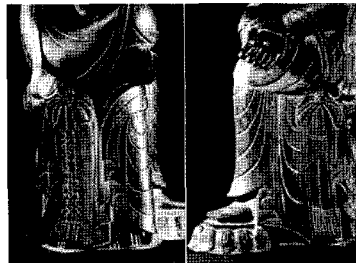
분별로 적절한 복식형태를 제시한 복식금제령의 한 부분에서 허리띠와 장화 끈 장식에 대한 규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볼 때 당대 신라인들은 의복에 끈목과 같은 장식을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경공장(京工匠: 필요한 수공예품을 조달하기 위해 일정한 수의 장인을 한성漢城안의 궁과 관청에 예속시킴)에 다회장(多繪匠)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궁중과 관청에서 그 수요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

다.4) 일영출토 신여관(1530-1580)묘에서 출토된 광다회는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망상의 짜임이 정교하고 무늬가 아름답다. 망 안에는 백운모를 넣어 밖으로 비쳐보이게 했으며<그림5>, 이는 유리과 같이 반투명하게 비치는 광물로 유리대신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5)

오늘날 쟁점으로 동양불교미술의 진수로 꼽히는 걸장 중 하나인 국보 78호 “금동반가사유상”<그림6>의 허리띠 양쪽에 늘어진 장식드리



<그림5>
광다회(석주선기념박물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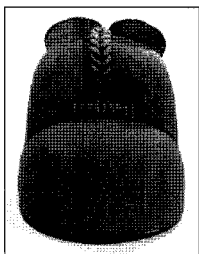


<그림6> 국보 78호
“금동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장)

개(요패수식)가 조선시대 선비, 관료들의 허리띠에서 늘어뜨렸던 “광다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일부 주장이 나왔다. 이는 국내 반가사유상에서는 반드시 표현되어진데 비해, 중국이나 인도의 반가사유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⁶⁾

2) 관모(冠帽)

관모의 주체를 더욱 아름답게 부각시키기 위한 요소로 끈목장식의 형상을 볼 수 있다. 왕이 평상복 차림으로 정무를 볼 때 쓰던 익선관 <그림7>은 국초부터 사용되었으며, 중국 송나라 때는 ‘절상 건’이라 하였다가 명나라에서 ‘익선관’이라 이름 하여 조선 세종 때 명나라 황제가 면복과 상복의 일습에 끼워 보내면서 쓰게 되었다. 고종황제폐하의 어진<그림8>에서 보이는 원유관은 고려 말 공민왕 19년(1370)으로 명나라 태조로부터 면복·원유관·강사포가 사여된 데서 비롯되어 조선시대에 와서도 왕 왕세자가 삭망(朔望)·조강(詔降)·진표(進表)·조현(朝見)등에 강사포와 함께 착용하던 관이다. 얇은 동다회의 형태로 장식적은 측면 뿐 아니라, 관모의 고정(固定)을 도우는 실용적인 면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림7> 고종익선관
(세종대학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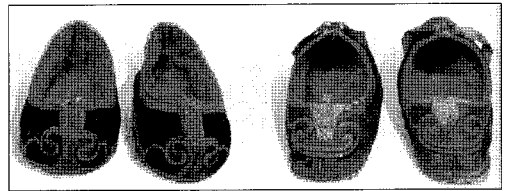


<그림8> 고종황제폐하 어진
(공중유물전시관 소장)

3) 신 발

조선시대 한성부 관운 김원택(1683-1766) 일가의 묘역에서 출토된 첫째며느리 한산이씨(1712-1772)와 셋째며느리 전주이씨(1722-1792)의 신에서 옛 여인의 발치장을 볼 수 있다. 이는

고운 명주로 만든 습신으로 모서리부분에 얇은 동다회 끈목을 둘러주어 신발의 단아한미를 보여준다. 김원택(1683-1766) 묘역에서도 동다회 끈목으로 구름무늬를 형상화하여 멋을 낸 운혜<그림9>가 출토되었는데, 끈목은 여인들의 신에 장식적 요소로서 많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9> 운혜(충북대학교박물관 소장)

III. 풀·짚공예 형태로 나타난 복식에서의 위음직물

1. 풀·짚공예

우리 민족은 예부터 풀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 꽃을 즐긴다거나 하는 단순한 관상으로만이 아니라 갖가지 생활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하며 살았다. 주거 용품의 중요한 재료였고 의류의 불가결한 원료였으며 집에서 쓰는 온갖 민구는 물론 농사에 필요한 각종 그릇들의 재료로 쓰였다. 더불어 예부터 농촌에서는 백중(百中)날을 전후하여 농촌에서 힘겨운 세벌논매기를 끝내고 여흥으로 마을 잔치가 벌어진다고 한다. 특히 이날 즐기는 풍속으로 ‘호미씻이’가 있는데 그 해에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의 머슴을 뽑아 얼굴에 검정 칠을 하고 도롱이를 입히며, 머리에 삿갓을 씌워 우습게 꾸민 다음 지게 또는 사다리에 태우거나 황소 등에 태워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놀이다. 풀과 짚으로 만들어진 도롱이의 경우, 비옷의 기능적 역할 뿐 아니라 세시풍습 놀이의 소재 중 하나로 의미를 더해왔다. 이처럼 풀의 활용도는 매우 광범위했다.

짚이 언제부터 우리 일상생활에 쓰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논농사의 보급과 더불어 곡식을 탈고 난 짚으로 간단한 생활기물을 만들

게 되었고 점차 인지가 발달되면서 세공을 가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여러 종류의 기물을 제작 사용하게 되었음은 분명하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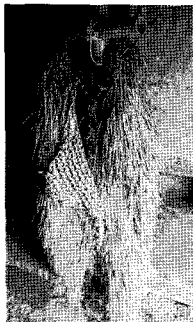
2. 소재

자연자원을 그대로 가공 사용하여 제작했기에 짙은 습기와 해충 등에 약해 오래 보존되지 못하므로 오래된 유물의 예는 없다. 풀·짚공예로 이용된 짚에는 벼짚과 보리짚, 수수짚, 밀짚, 귀리짚 등이 있으며, 이들 중 벼짚, 수수짚, 귀리짚은 새끼나 명석같이 꼬아 만들거나 엮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특히 벼짚은 부드럽고 질기므로 가장 많이 쓰였다.8)

3. 복식에서 나타난 풀·짚공예의 활용

1) 의복

짚이나 띠 따위로 엮어 어깨에 걸쳐 두르던 재래식 우장의 한 가지로써 도롱이 혹은 녹사의(綠衣)라고도 한다. 도롱이에 대한 문헌을 찾아 보면, [고려사] 권 제40 공민왕 3. 갑진(甲辰) 13년 봄 정월 임오(壬午)에 대호군 김두(金斗)가 서북면 채복사로 갔다가 돌아 왔다. 그때 군졸들은 추위에 떨고 굶주려 있었으며 도롱이(籠) <그림10>를 몸에 두르고 지내었다고 하였다.



<그림10> 도롱이
(제주민속촌박물관)

또한 [용제총화]에 ‘신축년에 기지와 경숙이 승지로써 죄를 입어 과직을 당하고 관동에 놀러 갈 때 흰옷과 짧은 도롱이로 각각 어린종을 거느리고 가는데...’라는 글이 있다. 이러한 글들로 보아 도롱이는 단순히 비옷만이 아닌 추위를 피하는 용도와 가난한 시인의 외출복, 신분을 위장하는 데에도 편리하게 사용되었다고 보인다.9)

상복을 입을 때 허리에 두르는 띠를 요질이라고 한다. 짚에다 삼을 섞어 굵은 동아줄같이 만들어 허리에 두르는 것으로, 이는 상제의 효심이

꼭 차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통적인 상복에는 남자는 굴건제복, 여자는 대수장군을 착용한다.

또한 여름철에 소매 안에 끼우는 것으로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할 때 사용하는 토시는 풀·짚등을 이용하여 엮음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이처럼 의복에서 보이는 풀·짚공예는 기능적 측면이 두드러진다.

2) 관모(冠帽)

[고려사] 권 제135 열전 제48 신우 갑자 10년 계묘일 밤에 ‘신우가 궁녀 내시를 데리고 거리와 마을로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가로에서 노래를 불리고 풍악을 잡혔다. 그때 우는 즐겨 백색 초립을 썼다. 노예들 중 악소년들도 모방하여 그런 초립을 쓰고 임금으로 가장하고 밤이면 마을로 돌아다니며 닭과 개를 죽이고 혹은 주민들의 재산을 약탈하다가 발각되어 처단 당한 자가 있었다.’ 하여 초립이 고려 때부터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10)

황색의 가는 풀이나 대오리를 엮어 만든 ‘초립’, 가늘게 쪼갠 땃개비로 후세의 ‘갓’ 모양으로 만든 ‘패랭이’ 등은 같은 맥락이다. 패랭이 후에 초립·갓이 생겨 나오고, 갓은 흑칠을 하여 흑립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 양반계급만의 관모가 되었다.11)

또한 승려가 외출할 때 남의(衲衣)와 함께 착용하는 여승(女僧)이 쓰던 모자 ‘송낙(松蘿)’이 있다. 이는 소나무 겨우살이로 짚 주저리 비슷하게 엮어 만든 것으로 정상(頂上)이 뾰족한 원추 형태(원뿔꼴)를 이루고 있어 상고시대의 고유 관모(冠帽)와 닮았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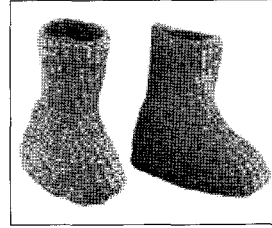
3) 신발

[중국정사 조선전中國正史 朝鮮傳]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東夷列傳]-[한韓]에 마한 사람들은 ‘짚신을 신는다.’ 하여 짚을 엮어 신을 만들어 사용한 시기가 2000년 전까지 올라감을 알 수 있게 한다. 짚신의 유물은 없지만 신라 때의 짚신 형 토기<그림11>가 있어 당시의 짚신 형태가 요즈음의 것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13)

짚으로 삼아 만든 신으로는 망리(芒履)·비구



〈그림11〉 짚신형태기 (©EnCyber.co)



〈그림12〉 동그니 신(국립민속박물관)

(扉屣)·초혜(草鞋)·초리(草履)와 같은 일상용의 짚신뿐 아니라 겨울철 미끄럼 방지 및 방한용으로 목이 높은 동그니 신<그림12>은 서민층에서 남녀모두가 신었다. 삼·모시·노(실·삼 꺾질·헝겂·종이 등으로 가늘게 꼰 줄) 등으로 삼은 미투리 또한 같은 맥락이다.

IV. 매듭형태로 나타난 복식에서의 엮음직물

1. 매듭

인류는 매듭기법을 발견함에 따라 실용적인 생활수단과 더불어 기억·표지, 문자적 구실, 무늬의 형성 등 원시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 문헌 중에는 ‘結’ 또는 結子라 했으며, 조선 초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1400년대의 문헌에 결(結)을 매듭(每緝)으로 언해한 기록이 처음 나타난다.¹⁴⁾ 역사시대에 이르러서 매듭의 이용은 장식, 의례, 장부(帳簿), 의장(儀裝), 복식, 편물 등을 육성시키는 모체가 되었다.¹⁵⁾

2. 매듭의 용도 변천 및 특징

상고시대의 매듭은 매듭의 기초적 형태로서 기억·표지·문자적 구실·무늬의 형성 등 당시의 원시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 삼국 시대에는 끈목과 끈목 짜는법이 일본에 전해질 만큼 매듭이 발달되었다. 운반·농경·건축·선박의 장 등 생업수단으로 그 용도의 폭이 넓어졌으며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의식용·장식용 매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매듭은 고려불화를 통해서 그 형태를 알 수 있으며 의례용·의류용 등으로 매듭의 사용범위가 넓어짐과 동시에 매듭기법이 발달한 시기이다.

조선시대에는 그 용도가 더욱 다양해져 실생활 전반에 널리 애용되었으며, 장식용 매듭이 생활화되면서 주로 화려하고 사치한 장식품으로 사용되었다. 후기에는 일반인에게도 생활화되었으며 상품화되었다.¹⁶⁾

3.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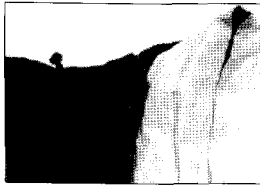
생사를 정련하여 염색하고 이를 꼬아 합사해서 짠 끈목을 사용한다.

4. 복식에서 나타난 매듭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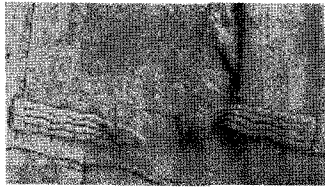
1) 의복

의복에서의 매듭활용도를 살펴보면, 실용적인 부분과 장식적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매듭의 실용적 측면은 출토복식 유물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 그 예로 조선시대 벼슬아치의 공복인 단령에 달린 연봉매듭단추<그림13>와 고름과 매듭단추를 함께 달아 의복 착용 시 안정감을 보여주는 이용해 장군의 철릭<그림14>을 비롯하여, 소매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만든 철릭(天襖)의 소매에 있는 단추<그림15> 등 상류계층의 의복에 달린 매듭단추를 손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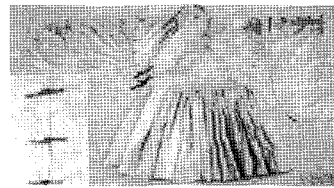
더불어 장식성을 나타내는 의복으로 조복(朝服)의 후수(後綬)가 대표적이다. 조복(朝服)은 조



<그림13> 관복 단령의 연봉매듭 단추(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그림14> 이응해장군 철릭의 매듭단추와 단추고리(충주박물관 소장)



<그림15> 철릭의 매듭단추 (석주선 기념박물관 소장)

선시대 왕이나 문무백관들이 설날아침·동짓날 등의 하례 때 또는 의식 때 착용하던 예복으로 백관복 가운데 가장 화려한 옷이며, 후수를 달아 그 화려함을 더하였다.

코 윗부분에는 얇은 동다회끈목에 엮음을 주어 만든 매듭형상이 보여 진다. 이 습신의 형태는 그동안 출토된 습신의 유물 가운데 유난히 화려하고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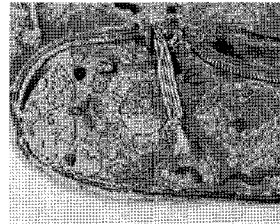
2) 관모(冠帽)

조선시대 후기 최고의 패션모자로 조바위 <그림16>를 꼽을 수 있다. 이것은 국말에 생긴 것으로 그 역사가 가장 짧은 쓰개이다. 아얌이 차차 사라지면서 가장 널리 사용된 부녀자의 방한모 겸 머리 장식으로 외출 시 사용하였으며 젊은 층보다는 노인들이 많이 애용했다.¹⁷⁾

조선 말기에 생겨나 양반에서 서민까지 널리 사용된 쓰개로 비단으로 만들며 이마위에는 금, 은, 비취, 매듭장식 등으로 장식을 하였으며 앞 이마와 뒤에는 끈이 달려 관모의 화려함을 더하였다.

3) 신발

조선시대 한성부 판윤 김원택(1683-1766)의 부인 청송심씨(1683-1718)묘에서 출토된 습신 <그림17>은 고운 명주로 만든 습신 위에 모란·연꽃·매화·나비가 가득 수놓아져 있으며,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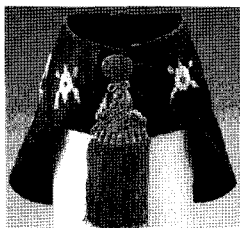


<그림17> 습신앞코부분(충북박물관 소장)

4) 장신구

궁중과 상류사회에서만 주로 쓰이던 매듭이 조선후기에 들어서부터는 점차 일반 평민에게도 많이 쓰이게 되었고, 따라서 조선말 매듭은 부속적인 장식품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조선중기의 풍속 화가인 신윤복의 ‘미인도 <그림18>’에서도 장신구를 찬 여인을 볼 수 있듯이 여성들의 노리개, 귀주머니, 귀걸이, 쓰개류 등에 매듭과 술을 달아 장식하였고, 남자들



<그림16> 조바위 (온양박물관 소장)



<그림18> 신윤복의 미인도 (간송미술관 소장)

의 선추, 안경집, 향낭 등에 매듭장식을 하고 방장, 발, 문방구류 등 각종 생활용품에도 매듭을 장식하였다.¹⁸⁾

V. 결과 및 고찰

복식에서 나타난 엮음기법을 크게 의복-관모-신발-장신구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용도마다 엮음기법의 형태, 소재, 특성, 활용도 등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에서 나타난 엮음기법의 형태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남자 관복 포(袍)류의 허리에 매던 끈목은 포(袍)의 옷 모양을 잡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주민증과 같은 호패도 술과 끈목으로 허리끈에 달고 다녀 오늘날 주머니와 같은 기능을 더해왔다. 또한 소매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만든 철릭의 소매와 여러 의복의 매듭단추의 활용은 장식적 측면과 실용적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복식에서의 엮음기법 형태가 그동안 장식적 효과로써 부분적으로 활용된 것에 국한하지 않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주체적 특징을 간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복에서 보이는 풀·짚공예의 엮음직물은 장식적 측면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 용도와 활용도를 쉽게 볼 수 있었다.

하찮은 풀·짚을 생활용품으로 창작 활용해 온 우리 조상의 슬기와 미에 대한 감각, 생활의 지혜는 최근까지 의복, 신발, 가방, 방석, 생활도구 등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는데, 이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경국가였으므로 농사의 부산물, 즉 알곡을 털어낸 짚이 매우 많았기에 가능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복식의 종류와 함께 달라지는 것 또한 관모이다. 모자를 옷과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전통시대의 인식태도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관모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로 인해 관모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그 형태와 소재가 다양해졌으며 엮음기법을 활용하여 부수적 역할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관모에 나타난 엮음직물형태의 끈목은 고정을 위한 끈의 쓰임과 함께 다양한 장식의 활용을 보여주

었고, 엮음직물형태의 풀·짚공예에서는 기능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끈목과 풀·짚공예에서 나타난 관모의 특성은 실용성이 두드러지는 반면, 매듭은 장식적인 측면에 국한되었다.

셋째, 신발은 발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에서부터 시작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목적과 형태가 달라졌으며, 열이나 냉해로부터 발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나 생활습관의 변화와 함께 기능성과 미적지향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발전해왔다. 짚으로 삼아 만든 목이 높은 형태의 둥그니 신은 겨울철 미끄럼방지 및 방한용으로 서민층 남녀 모두가 사용하였다. 이는 기능성을 대표하는 신이었으며, 신발의 선·코 부분에 끈목과 매듭을 이용하여 나타난 다양한 장식은 옛 선조들의 치장거리로 충분해 보인다.

이처럼 복식에서 보이는 끈목-풀·짚공예-매듭은 용도에 따라 기능적, 실용적, 장식적 특징이 나뉘어 나타나지만, 대부분 뚜렷하게 한 특징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능성, 실용성, 장식성이 동시에 나타났으며, 끈·끈목이 다시 매듭의 소재로 쓰이는 것으로 보아, 소재·형태·특성·용도 등의 다양함과 함께 전승민속공예의 광범위함을 보여준다.

오늘날 이러한 전승민속공예는 몇몇 장인에 의해서만 근근(僅僅)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특정 인물들만이 할 수 있는 문화재로 인식되어 우리에게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는 가속화되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생활도 빠른 패턴과 편리함을 지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엮음기법을 활용한 수공예품을 감상하면 우리 조상의 슬기와 미에 대한 감각, 생활의 지혜 등 다양한 공산품에 식상한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전통민속공예문화에 대해서 긍지와 애정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계승하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로써 전승민속공예는 전승 주체인 우리와 함께 온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으며 현대문명의 산물을 맹목적인 수용이 아닌 창조적인 수용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 전통문화의 특질을 살림으로써 세계 속에 우리문화를 드

높이고 민족의 자긍심을 지니도록 함과 동시에 고유 상품으로서의 자체적 개발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매듭장*. 국립문화재연구소, p.7.
- 2) 심연옥, 허동화 (2006). *끈목매듭*. 한국자수박물관, p.32.
- 3)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Op. cit., p.7.
- 4) Ibid., p.32.
- 5) 심연옥, 허동화 (2006). Op. cit., p.32.
- 6) <http://www.hani.co.kr>
- 7) 국립문화재연구소, *짚-풀공예* (1998). p.14.
- 8) Ibid.
- 9) Ibid.
- 10) 국립문화재연구소, *짚-풀공예* (1998). Op. cit., p.39.
- 11) 유희경, 김문자 (2006).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227.
- 12) 김영숙 (2004).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p.249.
- 13) 국립문화재연구소, *짚-풀공예* (1998). Op. cit., p.37.
- 14) 심연옥, 허동화 (2006). Op. cit., p.32.
- 15)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Op. cit., p.19.
- 16) 임상임, 안명숙 (2006). *전통매듭공예*. 서울: 교문사, p.107.
- 17) http://hair.culturecontent.com/dress/mo_woman_02.asp
- 18)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Op. cit., p.15.